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국민의 안전 담보로 한 정치적 결정
朴정부 잘못된 결정... 재검토 주장
비행 위험성·환경파괴 등 문제 지적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이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위험, 소음, 환경파괴,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V’ 모양 활자로는 부산 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재호 의원. /뉴스1

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며 김해 방향 역시 공항시설법과 군사기법에서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km짜리 활주로는 대형 화물기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 단체장은 “소음피해가 9배

가량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 훼손으로 서낙동강 철새도래지 자연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될 때 4조1700억원이던 건설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이미 6조9900억원으로 뛰었고, 고정장애물 절취비용을 합치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수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개항 이후 10년 이내 포화상태가 되는데도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에 막혀 활주로를 증설할 수도 없다”며 확장성 문제도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근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5개 지역 갈등 현안인 공항문제에 대해 경남, 울산, 부산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경북은 당시 대안이던 통합 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대표는 지난 13일 한 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등은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은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할 것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동남권 미래에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보해매실농원 매화축제 16~17일 매화축제가 열린 전남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에 봄기운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로 크게 북적거렸다. /해남군

안성시, 지역 화폐 ‘안성사랑카드’ 발행

안성시가 총 138억 원대 규모로 지역 화폐 ‘안성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카드형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형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처음 실시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또 이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일 개최하는 ‘지역 화폐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 범위 및 개인별 구매한도, 인센티브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성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가 발행예정인 138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으로 나누어 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 자동차 대리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평택시, 총리 만나 균형발전 지원 요청

미세먼지·균형발전 등 지역현안 논의
이낙연 총리, 평택 적극 지원 약속

경기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평택시 지역현안 지원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 등은 당진지역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다.

이어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철도 조기건설 ▲선박 항만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시범지역 추가선정 ▲평택 도시 숲 가꾸기 지원 ▲GTX 지체지역까지 연



지난 14일 정장선 평택시장·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이 이낙연 총리를 방문해 평택시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평택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평택항을 항만육상전력

공급설비(AMP) 설치 시범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택에서 포승(평택항)까지 철도망 구축 사업 중 안중~평택 구간 조기 착공과 도시 숲 조성을 비롯한 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광주 북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00여개 수출기업과 상담 기회 제공

광주시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북구는 “오는 4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19 광주 첨단클러스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2019 북업코리아(Boom up Korea) 광주’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며 북구와 광주전남코트리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에 북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유망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재(화장품, 뷰티케어, 유아용품 등), 조선기자재 분야의 30여 개 회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100여 개 수출 기업과 1:1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을 활용한 ‘수출 애로타



개 컨설팅관’을 운영해 수출 애로사항과 해외 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 등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북구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의 수주 성과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해외 바이어를 미리 섭외하고 각 분야의 품목별 사전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수출 계약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출상담회 참가를 희망 기업은 4월 1일까지 북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광주전남코트리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사진)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광주·전남지역 최대 국가산단인 첨단산단 1·2단계, 본촌일산산단 등 북구에 소재한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와 수출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장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3kW 기준으로 최대 3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는 20㎡ 기준 950만원, 지열 설비는 17.5kW 기준 1,000여만원, 연료전지는 1kW 기준 1,970여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설비 내용과 면적 등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성군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만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49개 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도 약 43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장성=봉태영 기자 bcj2020@

오늘의 날씨

3월 18일 (월)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0 | 해질 / 18:41

백령도 4/10
파주 -4/14
안천 3/12
수원 1/13
평택 -2/15
연천 -4/15
동두천 -3/15
가평 -4/15
서울 2/15
양평 -3/15
용인 1/13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